

전북농촌유학생 3년새 27→192명 급증

올해 신규 89명, 연장 103명… 운영학교도 6곳서 29곳으로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작은학교 살릴 것” 힘 쏟은 결과

전북농촌유학이 3년새 27명에서 192명으로 급증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 신규 89명과 연장 103명 등 총 19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서 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 27명이던 전북 농촌유학생이 2023년 84명, 2024

년 163명, 올해 192명으로 3년 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 6개교에서 29개교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신규 유학생 89명은 경기 32명, 서울 2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해 광주

10명, 전남 7명, 인천 5명, 부산 4명, 충남 3명, 대전·대구·울산 각 1명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체 유형이 80명, 유학센터를 이용하는 유학센터 형이 9명이다. 이는 시골 작은학교를 살려보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농촌유학 참여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가족체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학생 수에 따라 1명 30만원, 2명 40만원, 3명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존 학교당 1,200만원 일괄 지원에서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지원금도 확대된 만큼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 목회자 세미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목회다운 목회’라는 주제로 ‘2025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지역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목회다운 목회’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목회와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에 비타민을 제공하고, 1세기 사도들의 목회를 비롯한 21세기 대한민국 목회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나뉘면 교회’ 김관성 목사의 ‘김관성 목사의 목회 이야기’라는 주제와 전주대 선교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조재천 교수의 ‘조재천 교수의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목회적 실천과 신학적 깊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목회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참석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일까지

학습코칭 직무연수 전문과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3일 3일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학습코칭 직무연수 전문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습코칭이란 교사가 학생의 학습유형을 이해하고 공부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진단한 후,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과정(원격, 30시간)과 심화과정 4일(대면, 24시간), 전문과정 3일(대면, 18시간) 등 총 72시간을 이수해야 학습코칭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기 전문과정인 이번 연수는 학습코칭 표준교육과정(안)을 만들고, 학습코칭 6가지 전략을 공유해 자신만의 학습코칭을 디자인하는데 초점을 뒀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지난해 전북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통해 양성된 1기 전문과정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수 대상자와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기 전문과정 강사들은 과목별·학교급별·지역별 특색을 담은 학습코칭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연수의 현장성을 높일 전망이다. 한편 전문과정 2기 이수 교사들은 오는 3월부터 ‘교실 속 학습습관형성 60일 프로젝트’에 필수로 참여해 학생의 학습 습관 형성을 돕고,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은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개별 학습으로 학력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재료학회서 연구역량 입증

전북대 라용호 교수팀 연구원 4명, 학술대회서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라용호 교수(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공학전공) 연구팀이 2024년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 4건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에는 엄대영 연구교수, 오정균 박사과정생, 김용호 석사과정생, 이민석 석사과정생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엄대영 연구교수는 ‘낮은 레이저 임계값을 가진 질화물 기반의 1차원 반도체 나노와이어 시스템’을 주제로 초심각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무기발광 나노-레이저 픽셀 기술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오정균 박사과정생은 ‘고효율 수소 생산을 위한 III-질화물 반도체 나노구조 개발’을 통해 PEC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호 석사과정생은 ‘인돌 용액 완화와 비극성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적색 광반도체 효율 향상 기술’



전북대학교 라용호 교수 연구팀.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발표하며 질화물 기반 적색 마이크로 LED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핵심으로 기대된다. 이민석 석사과정생은 ‘다중 색상을 발광하는 질화물 기반 마이크로 LED 동시 성장 기술’을 선보였다. 해당 연구는 하나의 기판에서 파랑

부터 초록까지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제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라용호 교수는 “이번 성과는 우리 연구원들의 탁월한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질화물 기반 반도체 소재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중심 특수교육 추진’

전북교육청,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정책 방향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특수교육 교원 및 교육전문직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2025년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협력교사 지원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보강강사 지원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 학교 확대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권역별 행동중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진학 지

도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할 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창단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끝으로 전북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된다. 전북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혁신을 주도할 중심 기관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특수교육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통해 진실 밝힐 것”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도내 교원단체 등 성명 잇따라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교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선고가 끝난 뒤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며 자리를 떴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실제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였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2일 이틀간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5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워크숍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실태 보고 △에듀테크 활용 노동인권교육 방법 등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도내 133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의 미래, 세계인들에 각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2036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전북대 학교 양오봉 총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차를 지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어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통해 K-pop, K-food에서부터 K-반도체, K-방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자”고 덧붙였다. 한편 양오봉 총장은 다음 주자로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지명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는 가장 한국적인 지역에

서 한국의 멋과 맛, 혼을 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지역 거점대학을 넘어 세계 거점대학으로 비약하고 있는 전북대 학교도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통해 K-pop, K-food에서부터 K-반도체, K-방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자”고 덧붙였다. 한편 양오봉 총장은 다음 주자로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지명했다. /장은성 기자

청년 고용 지원 모범 사례 ‘자리매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6년 연속 최고등급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신숙경)는 2024년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기준으로는 4년 연속,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 연속 최고등급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청년 고용 지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원스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활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만족도 제고 및 취업준비도 향상도 3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2024년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진입해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운영 대학으로 전국 8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력 설계와 취업 연계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주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 설계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석대 대학일자리본

부는 직무 멘토링 패키지와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데이 운영, 모의면접 실전 캠프 진행 등 고교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협력해 고교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이 21일 설 명절을 맞아 장수군 장애인복지관에 쌀과 생필품을 기부했다.

장수교육지원청, 나눔·봉사 실천 ‘앞장’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3곳에 쌀·생필품 기부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관장 정호영) 및 관내 3개 사회복지 기관에 쌀과 생필품을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기부물품은 장수군 내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돌봄 센터에 전달되

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아동,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히 추영곤 교육장은 그동안 급식 봉사활동을 해오던 기관을 대상으로 기부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